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7년 8월 13일 (제911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좁은 길로 와라

기도원으로 어느 지교회 사모가 나를 찾아왔다. 그런데 그 사모가 하는 말이 놀라웠다.

“목사님, 제가 예사로지 않은 꿈을 꿔왔습니다. 제가 천국을 향해 사다리를 타듯, 급경사인 산을 오르듯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올라 기진맥진하여 천국 문을 여니 거기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어떻게 왔니?’ 라고 물으시기에 제가 ‘목사 사모로서 정말 힘들게 살아왔다’고 하자, 목사님이 ‘애썼다. 어서 오너라.’ 하시며 그제야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제게 ‘저 아래를 보라.’ 하셔서 그곳을 보니 거기에는 저처럼 천국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도중에 천국까지 이르지 못하고 푹푹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목사님은 ‘잘 보라. 떨어지는 사람 중에 우리 교회 장로도 있고, 우리 성도들도 많단다.’ 하시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니 신앙생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내 꿈에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우리 장로들을 건지지 못해서 애뒀던 일이 있었다. 그렇다. 신앙생활은 치열한 싸움이고, 영적 전쟁이며, 천국으로 가는 길은 그 사모의 꿈대로 좁은 길이요 험악한 길이다. 그래서 많은 것을 버리고 가야 한다. 버리지 않으면 거저적거려서, 그것에 치여갈 수가 없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눅14:26).

제일 무서운 것은 영원하다는 것이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상상해보라. 끔찍하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전투고, 꼭 승리해야 하는 것이다. 좁은 길로 가라.

믿음의 선친들의 경험담을 공유하라

하계산상집회 2주차, 뜨거운 불별더위가 한반도를 삼킬 기세지만, 장성 예수중심 기도원은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삼복더위를 무색케 했다.

총회장 목사님은 ‘성경은 믿음의 선친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다.

‘왜 문제가 안 풀릴까? 왜 기도가 응답 안 될까? 왜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할까?’ 우리는 매사 ‘왜’라는 안경을 쓰고 만물을 보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라는 답이 나옵니다. ‘어떻게’라는 답이 정확히 실린 곳은 성경입니다. 더욱이 성경에는 믿음의 선친들이 모델이 되어 직접 경험하고 직접 터득한 지식들을 써놓음으로 정보를 공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친들이 행한 것처럼

은 말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라고. 이삭도 같이 말합니다. 순종하면 나처럼 복을 받는다고요.

다음은 요셉이 주는 정보입니다. 요셉이 노예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대신이 된 것은 오직 매사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옥에 갇혀서도, 애굽의 총리대신이 되어서도 그는 매사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나는 일에 성과가 없을까?’, ‘왜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 라는 답은 요셉처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 승진하지 못할까? 왜 승승장구하지 못할까?’ 하며 고민하고 낙담하는 자들에게 다니엘이 말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라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진다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

렘 다윗이 침상이 젖도록 회개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얻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죄의 대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개가 중요하다고.

‘왜 자식이 없을까? 왜 일의 열매가 없을까?’ 하는 분들에게 한나는 말합니다. 기도밖에는 없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닫은 태의 문도 열어주신다고.

왜 아내와 사이가 안 좋을까? 왜 자녀와 냉랭한 관계일까? 왜 성도와 싸울까?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18:18).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모든 문제해결 방법이 기록되



2017 하계산상집회(7월 31일 ~ 8월 17일, 예수중심기도원)

행하면 우리 인생사 전반의 문제도 절로 풀리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선친들이 전해주는 정보를 공유해봅시다.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대명사지요. 백세에 난 아들을 제물로 드릴 만큼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복의 근원은 물론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왜 나는 복을 못 받을까?’ 하는 분들에게 아브라함

렘을 향해 하루 세 번 기도를 했습니다 (단6:7). 물론 위기가 있었지만 그는 그 결과 느브갓네살 왕부터 바사의 고레스 왕까지 4대에 걸쳐 형통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이던 그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이유는 신접한 여인의 술법에 의지할 정도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울도 후회하면서 말합니다. 절대 자기처럼 신앙에 타협하지 말라고.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죄를 지었거든 빨리, 무조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충신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 자작극을 벌

어 있고, 믿음의 선친들이 친히 해결방법을 제시하며 공유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늘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에서 배운 대로 실천하여 영·혼·육의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아주 쉬운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렵다. 그러나 답을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자는 물속에서 물을 찾는 물고기와 같다. 배움의 끝은 실천임을 알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다음 주에도 산상집회는 계속 된다.

기자 신묘수

jesus7857@gmail.com



영혼육이 강전해지는 산상집회



기도가 통성한 산상집회



성령이 역사하는 산상집회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잠6:6~11)



게으름의 정의는 무책임이다

‘I like diligent people(나는 부지런한 사람을 좋아한다).

I don't like lazy people(나는 게으른 사람을 싫어한다).’

전국 중고등부 연합수련회에서 내가 청소년들에게 한 말입니다. 정말이지 저는 게으른 사람 꼴을 못 봅니다. 게으른 목사, 게으른 직원, 게으른 자식 꼴을 못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첫 번째 덕목은 부지런함입니다. 성공의 첫 번째 덕목도 동일하게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금 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잠 21:5)

‘미국 독립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그의 업적을 보자면 ‘참 위대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는 미국 최초의 철학자였으며, 정치인이었고, 과학자였으며 최초의 미국대사였습니다. 그는 하모니카를 발명했고, 가로등을 발명했습니다. 그는 최초의 정치 만화가였고, 당대 최고의 수영선수였습니다. 그는 피뢰침을 발명했고, 썸머타임을 최초로 도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를 네 번이나 역임했으며, 우편을 통한 신문배달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는 미동북부 지역 태풍 경로를 처음으로 그려냈습니다. 그는 거리 청소과를 처음으로 창설했습니다. 그는 1776년 독립 선언서의 초안도 작성했고, 현재의 펜실베이니아 대학과 펜실베이니아 병원을 세우는 등, 사회문화 사업에도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프랭클린이 어떻게 이런 업적을 남기게 되었을까요? 부지런했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배워라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인생의 자본금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는 이 자본금을 늘려 쓰는가 하면, 어떤 자는 줄여 씁니다. 전자는 부지런한 사람이고, 후자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자본금은 많을수록 큰 사업,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26장 14절에 나오는 말쑥처럼 문짝이 돌쩌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침상에서 이리 눕고 저리 누워 자본금을 허비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엢 5:16). 세월은 아낀다고 아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부지런을 떠는 것입니다. 시간을 쪼개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갈아서 쓰면 세월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무

슨 일을 하라고 하면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을 떨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부지런함과 게으름은 마치 빛과 어둠처럼 극과 극의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잠언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잠10:4),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잠12:24),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잠12:27),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

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잠 13:4), “네가 자

기 사업에 근심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잠22:29)...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 중 하나가 다 부지런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벽에 일어나 모리아 산을 찾았고, 야곱도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불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창31:40)”라고 고백할 정도로 부지런히 외삼촌 집에서 일을 했으며, 요셉도 풍년시기에 부지런히 창고를 채워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엘리야도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왕상 19:10)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일에 부지런했고, 다윗 역시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이른 새벽에 일어났습니다(시 119:148). 사도 바울의 사역도 기도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부지런함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살전2:9). 예수님도 공생애 기간 동안 쉬신 적이 없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날이 밝으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으셨으며 밤이 되면 다시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자의 문 앞에 누워 헌데나 활고 살던 나사로 같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각 분야에 성공하고, 넉넉해서 남을 도와주며 사는 예수중심교인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나사로처럼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천

국에 가야 하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거부였었다’는 말처럼, 이 땅

에서도 잘 살며 나뉘 주는 삶을 살았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구하고, 부지런히 찾고, 부지런히 두드리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전도하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장사하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운동해야 합니다. 부지런한 자만이 꿈에게 기회를 주기에 그렇습니다.

부지런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늦게까지 자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식적으로 부지런을 떨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부지런을 떨다보면 무의식속에서도 부지런해집니다. 처음에는 알람을 여러 개 틀어놓고 새벽에 일어나야 하지만, 이것을 반복하다보면 나중에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나게 됩니다. 의식적으로 자꾸 반복을 하다보면 무의식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습관이며, 그 습관이 바로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과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돈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러자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마25:16) 다섯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마25:17) 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둘 다 즉시 장사했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악이요 인생의 독소다

부지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그것을 묻어뒀습니다. 안 움직인 겁니다. 게으름 피운 거지요. 그리고는 주인이 와서 회계하자 핑계를 댑니다. 예나 지금이나 게으른 자들은 핑계를 잘 댑니다. 오죽하면 잠언 22장 13절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나 부지런한 자들은 핑계나 변명 대신 방법을 찾습니다. 그에게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을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으라’고 합니다. 곧 게으름은 악이라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의 원래 뜻은 ‘돌보지 않는다.’ 랍니다. 한 마디로 ‘게으름은 무책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무책임하기 때문에 게으른 겁니다. 게으른 부모가 자식 잘 키우는 것 못 봤습니다. 게으른 주의 종이 목회 성공하는 것 못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 마음을 두라”(잠 27:23)고 하였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롬12:11~13)고 하셨습니다. 제가 72개국에 복음을 전하면서 백여 개가 넘는 국내교회를 돌볼 수 있는 것은 책임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내 양떼가 행여 다칠세라, 아플세라, 누가 채갈 세라 살피야 하기에 부지런을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먹이고, 부지런히 살피는 것입니다. 때론 몸이 두 개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땀입니다.

부자로 살고 싶습니까? 성공하고 싶습니까? 밀천이 없습니까? 배움이 없습니까? 부지런한 것보다 큰 자산은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도전하면 분명히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총회장 이초석 목사



2017 여름성경학교

7월 30일(주일)~ 8월 1일(화) - 인천

8월 6일(주일)~ 8일(화) - 서울

하나님께 인정받는 어린이가 되자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어린이가 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2017 여름성경 캠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다. 신명기 6장에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심지어 누워있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다. 그러면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결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고,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신다’고 하셨다. 그러니 이 여름성경캠프

야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한 없이 귀한 시간이 아닐 수 없다. 아이들의 심령은 아직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하얀 도화지와 같다. 거기에 무엇을 그리게 할 것인가! 거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아름다운 꿈과 큰 믿음을 그려준다면 그것이 아이가 자라는데 평생의 자양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쑥쑥! 시원한 물놀이로 몸과 마음도 쑥쑥, 친구랑 함께 해서 사랑도 쑥쑥 자란 우리 예수중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항상 넘치기를 기도한다.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인 우리 아이들



먼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름성경학교를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직접 인도해주시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0월 인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교육전도사로 임명 받아 10개월간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경험도 없는데도 혼자 3부서를 맡아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이 심적으로 부담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모든 일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1년 중 교육부서 행사로는 가장 큰 행사라 할 수 있는 인천 여름성경학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어린이!”란 주제로 지난 7월 30일 시작되었습니다. 첫날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첫날 저녁, 어린이 부흥회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은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회개기도로 시작해 교사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끌어안고 눈물 흘리며 간절한 기도를 드렸고, 첫날부터 기도로 준비케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다음 날 아침에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인 월요일은 어린이들이 기대하는 물놀이 시간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아침부터 빗방울

이 점점 굵어져 급기야 호우주의보까지 내려졌다. 일기에 보를 확인해 보니 저녁 7시까지 비는 멈추지 않고 계속 될 예정이었다. 그냥 오다가 쉽게 멈출 비가 아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또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일밖에 없었다. 아무도 없는 소성전으로 들어가 혼자 앉아서 어린아이처럼 대성통곡하며 부르짖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떡합니까? 비를 멈춰주세요. 어린자녀들 실망치 않게 도와주세요.” 한참을 정신없이 부르짖다 보니 문득 ‘위기를 기회로 삼으라’시던 목사님의 가르침이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주님은 “어린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함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 한곳에 아이들이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슬며시 고개를 들자 하나님은 또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자신의 눈앞에서 저 비가 멈추는 것을 볼 때, 그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그 믿음이 자라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감사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지체없이 어린이들과 교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지난 저녁에 기도한 터라 어린이들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모두 한마음이 되어 모든 힘을 다해 1시간을 부르짖었다. 어린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기에 그 시간의 기도는 더욱 간절하였다. 드디어 검은 비구름은 떠나고 교회 위 하늘이 점차 밝아졌다. 구름으로 해는 가려져서 뜨

겁지 않았고 공기는 따뜻하여 마치 대형 실내풀장이 된 듯 뜨겁지도 춥지도 않은 최고의 날씨였다.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바다를 이루었고,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복된 날이 되었다.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행사로 끝나게 하지 마시고 어린이들의 믿음이 자라고, 변화된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 부모님들이 은혜 받고 변화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로 준비했었다. 이 사건을 통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 저녁, 성령의 밤을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 은혜를 쏟아 부어주셨다. 담임목사님의 인도로, 소경된 자같이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린이를 인도할 수 있는 교사들이 될 것을 당부하셨고, 교역자, 교사, 학생 모두 하나가 되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다.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고, 서로 안아주며 사랑을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다. 이번 캠프는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모두 뜨겁게 느끼는 시간이었고, 어린이들도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느냐는 질문에 ‘성령의 밤’, ‘어린이 부흥회’란 대답이 ‘물놀이’보다 먼저 나올 정도였다. 우리가 기도할 때 비를 멈추신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다는 어린이들의 말에 교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인도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가르침을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인천 예수중심교회 교육부
박경원 전도사

오뎅 열개

막노동으로 생활비와 검정고시 학원비를 벌던 시절, 밥값이 없어 저녁은 거의 굶을 때가 많았다. 어느 날 저녁, 학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주머니에 400원 밖에 없었다. 오뎅 한 개 사먹고, 국물만 열 번 떠먹었다. 그런 내가 안쓰러웠던지 아주머니가 오뎅을 열 개나 주었다. “어차피 통통 불어서 팔지도 못하니까 그냥 먹어요.” 허겁지겁 먹는데 눈물이 그렁그렁해졌다. 그 후에도 통통 불어버린 오뎅을 거저 얻어 먹곤 했다. 그때 저는 아주머니께 나중에 능력이 생기면 꼭 갚아드리겠다고 말했다. 이후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교도 졸업하고, 운 좋게도 대기업 인사과에 취직이 되었다. 아직도 그 포장마차가 그곳에 있을까 싶어 찾아가 보았다. 6년 만이었다. 여전히 장사를 하고 계셨다. 그런데 아주머니 옆에 아들이 함께 있었는데, 다리를 심하게 저는 뇌성마비 장애인이었다. 장애인이라 마땅한 취직자리가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아주머니가 안쓰러웠다. 우리 회사는 장애인을 전문으로 채용하는 사회적 기업이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58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학자금도 보장되는 회사. 당장 회사 사장님께 찾아가 자조지종을 이야기했다. 얘기를 다 듣고 난 사장님은 흔쾌히 승낙해 주었다. 아들이 채용되자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나는 대답했다. “제가 먼저 빚을 갚아야요. 그걸 갚았을 뿐인걸요.” “흐르는 물 한 컵에도 은혜를 잊지 말라.” 우리는 총회장 목사님께 이렇게 배웠다. 흐르는 물 한 컵이 뭐 대수로울까만 은혜를 알아야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잊겠으며,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고 있는가?

온열질환 예방하세요!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무더위가 심해지는 요즘 국민안전처에서 폭염주의보를 발령하며 일사병,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2014년부터 온열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도 현재까지 781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중 4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실외에서의 발생률은 작업장이 34%, 논밭이 21%, 길가 16% 순이었다. 온열질환이란 여름철 폭염 속에서 무리한 외부활동 시 발생하는 질환으로 어지럼증, 구토, 발열, 신경 및 정신 이상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일사병, 열사병, 열경련, 열탈진, 열부종 등이 있다. 일사병은 무더위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신체 온도가 37~40도까지 상승하는 질환으로 체액이나 땀으로 전해질, 영양분의 손실로 인한 탈수증상이다.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입고 있는 옷의 단추 등을

풀어 헐렁하게 해주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시게 하면 대개 회복된다. 열사병은 고온의 밀폐된 공간에 장시간 머물 경우, 우리 몸의 체온조절중추 기능의 한계를 넘어서 신체 온도가 40도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은 뇌세포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정신 혼란, 발작, 의식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나므로 모든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체온을 낮추어야 하며 119에 연락하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열경련은 고온에 지속해서 노출되면서 저나트륨증으로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는 질환으로 어깨, 팔, 다리, 복부, 손가락의 근육에 경련이 생긴다. 열부종은 얼굴과 손, 발, 다리에 벌겋게 부어오르며 부종이 생긴다. 온열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정오에서 오후 5시, 가장 더운 시간대의 야외활동을 최소화하며 외출할 때 양산, 모자 등으로 햇볕을 차단하고 헐렁하고 가벼운

옷을 입도록 한다. 야외활동이나 작업 시에는 2시간마다 휴식을 취하며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물, 이온음료, 과일주스 등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고 ‘이열치열’이라며 뜨거운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집 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차단하고, 시원한 물로 목욕이나 샤워로 체온을 낮추고, 밀폐된 차량이나 방에 어린이나 애완동물을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75세 이상의 어르신이나 홀로 사는 어르신,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은 폭염에 취약하므로 더욱 건강관리에 주의하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막8: 36~37).
Dr. 조희경
pearl9230@naver.com

하계 산상집회

일시 : 7월 31(월)~8월 17일(목)
장소 : 장성 예수중심기도원
문의 : 02-533-9191

* 이번주가 마지막 주입니다